

인물

배배
정진
혜호

국립무용단 신작
예술감독 김종덕

시나이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서울어텀페스타
SEOUL
AUTUMN
FESTA

국립극장 해오름

2026.10.8~11

인사말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종덕



그동안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우리 춤의 가치를 확장해 온 국립무용단이 이번 시즌 개막작으로 배정혜, 배진호의 <더블빌:시나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무용단 최초로 무용수를 세대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한 작품으로 배정혜 안무가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전통춤의 호흡과 정서를 적극 반영했다면, 배진호 안무가는 움직임을 해체하고 서로 반응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극적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미 전통춤의 특징을 자신만의 독특한 어법으로 재해석한 <Soul, 해바라기>를 비롯하여 <코리아 환타지>, <춤 춘향>, <떠도는 혼>, <두레>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 온 배정혜 안무가는 국립무용단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서울시무용단의 예술감독을 모두 거친 유일한 무용가이기도 합니다.

배정혜 안무가가 전통춤의 다양한 해석과 확장성이 강점이라면,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배진호 안무가는 저돌적이고 감각적인 안무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업이 주로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을 통해 자신과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었다면, 이번에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질감의 움직임과 구성을 통해 어떤 파격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립무용단은 역사성을 존중하는 한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통해 국립무용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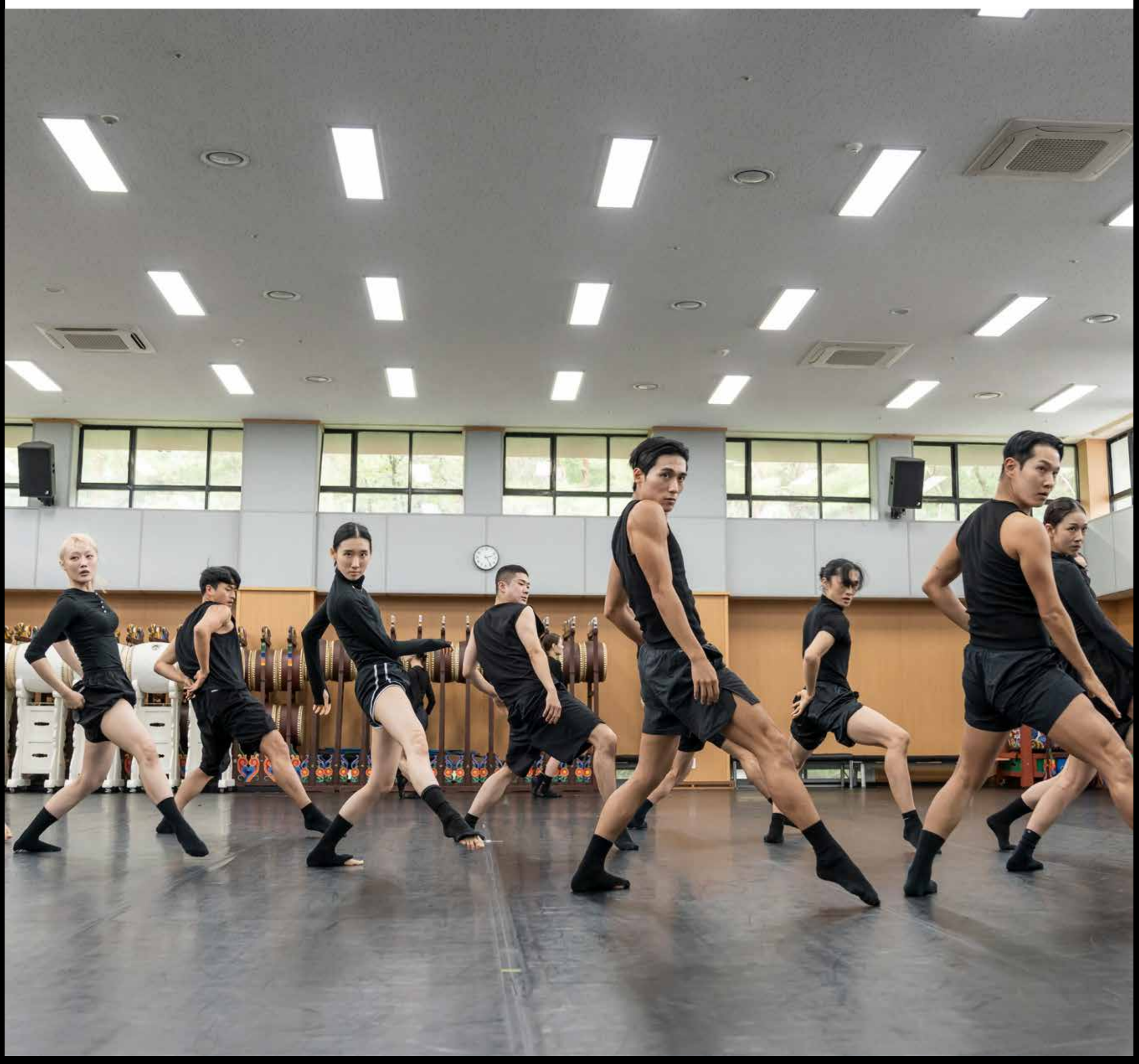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프리뷰

박성혜(무용평론가)

전통을 비교하고 인정하며 열어 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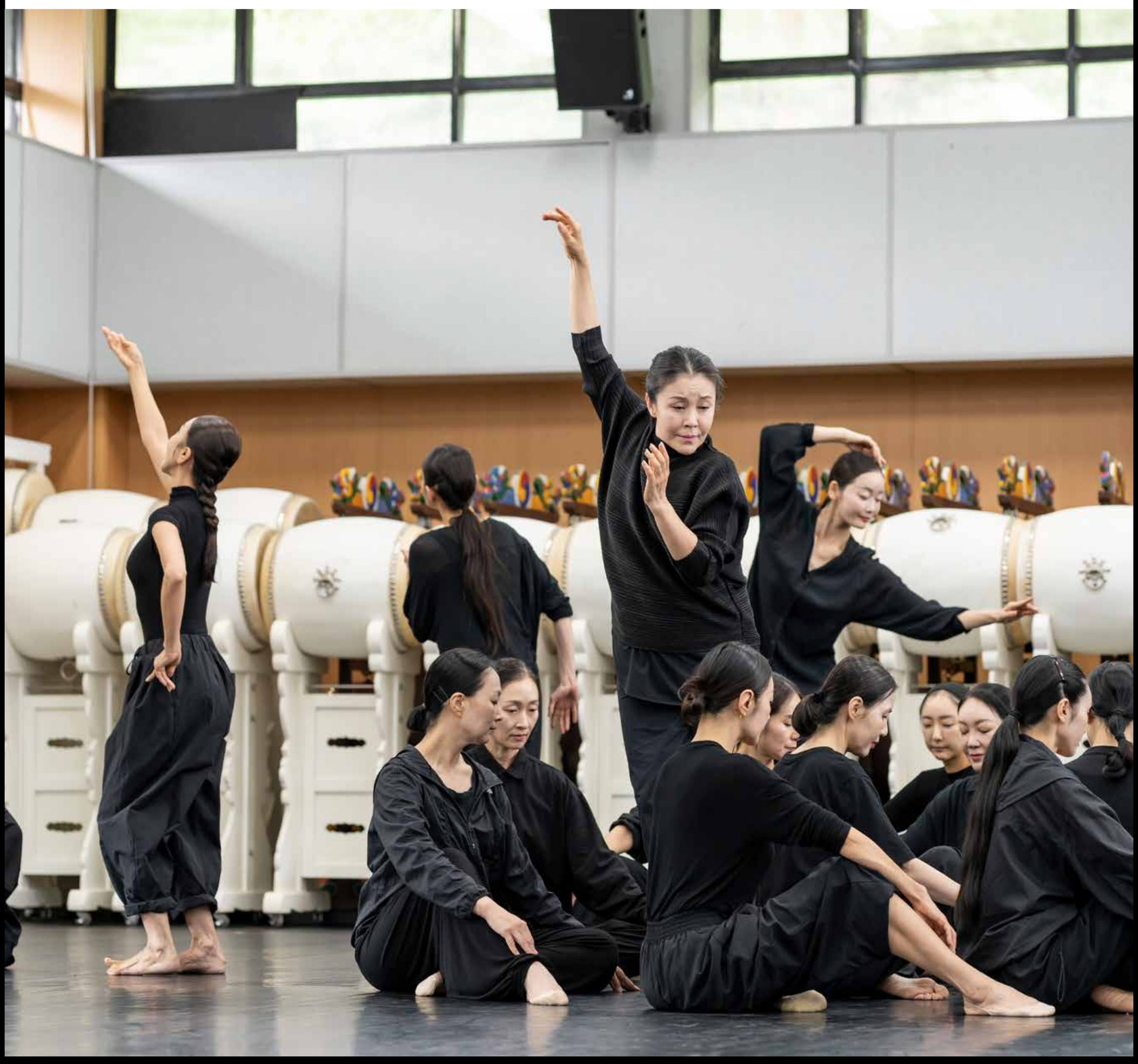
우리는 살풀이, 그중에서도 음악이자 형식이기도 한 시나위를 어떻게 보고 풀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안무가 배정혜와 배진호의 <살풀이 生>과 <AHRA>라는 신작을 보면서 고민해 봄이 어떨까 싶다. 이번 국립무용단의 <더블빌:시나위>는 1944년생 배정혜와 1994년생 배진호, 무려 반세기의 나이 차이를 보이는 두 무용가가 선보이는 시나위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인 동시에 한국 전통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두 안무가가 작업한 이번 공연 <살풀이 生>과 <AHRA>는 크게는 한국춤과 전통, 좁게는 시나위를 통해 두 안무가의 예술적 해석과 개성이 드러난다.



프리뷰

배정혜의 <살풀이 生>은 기존의 살풀이에 좀 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여 전진 배치한 작업이다. 이매방, 한영숙, 김숙자, 김수악류의 살풀이를 리서치하고 이를 안무가 배정혜 나름으로 해석하고 배치한 작업이다. 하지만 일반 관객이라면 심지어 한국춤에 대한 약간의 상식과 전문성을 갖춘 애호가 일지라도 그 각각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작품을 정작 마주하면 보이는 춤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탁월한 기량을 갖춘 무용수들의 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도입 부분에서 3명의 여성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춤은 한국춤이 지닌 여성성을 극대화한다. 후에 합류하는 여성 군무는 아름다운 한국춤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풍광 좋은 자연에서 노니는 여성들이 있고 그녀들의 아름다운 전통 복색으로 인해 이러한 면면은 더욱 강화된다.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대형과 배정혜 안무가가 제안하는 특유의 조형미를 통해 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적 체험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원일의 음악적 구성이 워낙 탄탄하고 이에 맞춘 춤사위들의 전개가 충분한 통일감을 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춤의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는 남성 무용수의 등장에서 이루어진다.



프리뷰

3/5

조선 시대의 한량으로 분한 6명의 남성 무용수들은 국립무용단의 중견 단원들인데, 기량과 표현이 이미 최고조에 달한 전문 무용수들인지라 중반 이후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렬하다.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부채와 수건은 매우 간단한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안무적 장치로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역할과 효과가 매우 크다. 무용수들의 동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남녀 무용수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 부채의 안무적 사용을 보면 매우 영리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살풀이 生>의 가장 큰 매력은 한국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과 색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세련됨과 화려함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한복의 해석이라든지 무대 배경과 장치를 통해 조선 시대의 풍속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녹여낸다. 이러한 연출과 시각적 효과는 단순한 고증과 재현을 넘어 현대적 감각까지 이끌어 내야 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출과 표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역시 안무의 주요 영역이기에 팔순이 넘었지만 평생을 한국춤의 세계에 헌신한 명인이 판단한 2026년의 춤이 새롭게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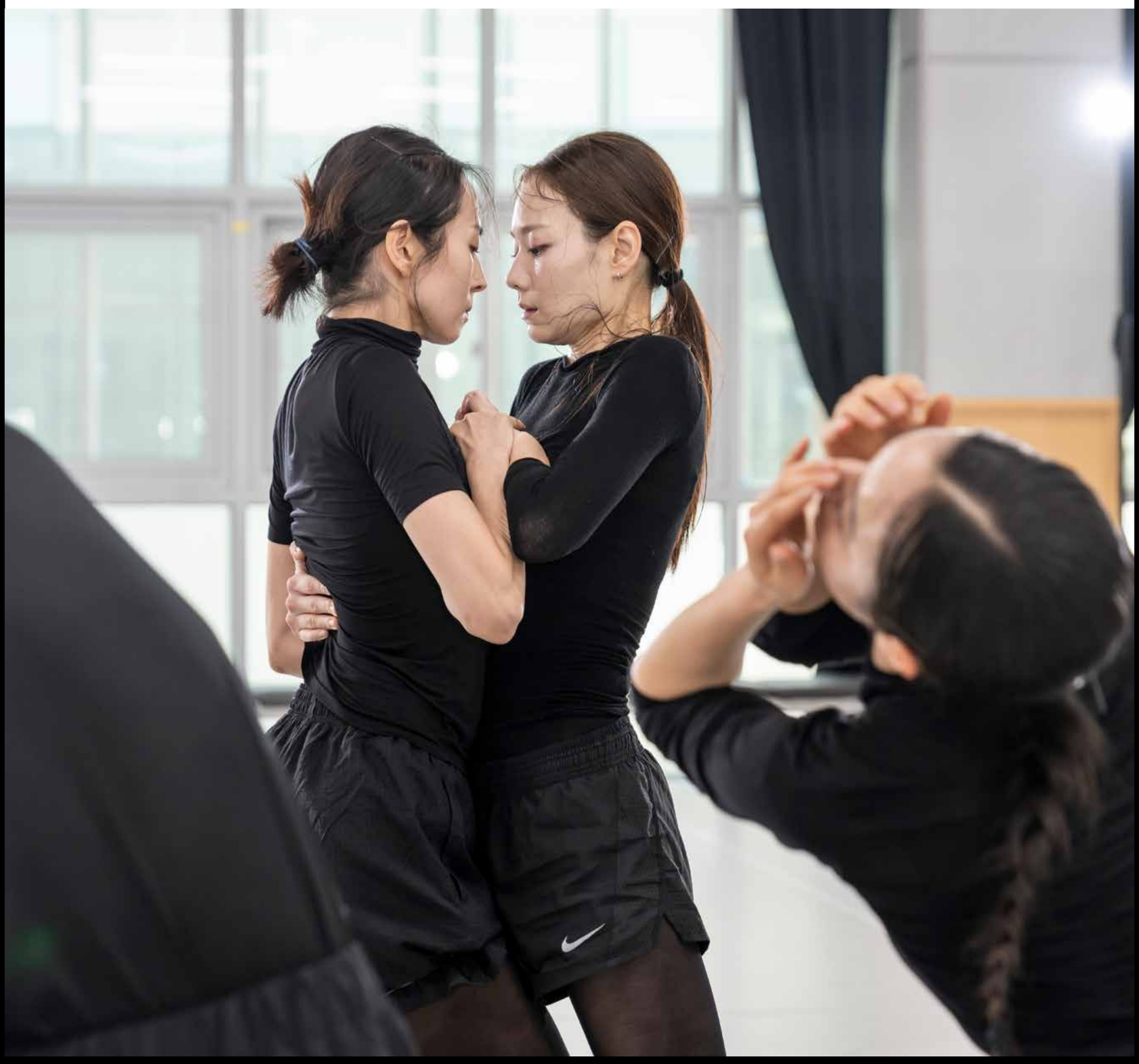


프리뷰

4/5

배진호의 작품 <AHRA>는 시나위를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 우선 한국적 정서를 대표하는 '한'을 아리랑에서 추출한다. 이쯤 되면 왜 작품 제목이 'AHRA'인지가 가늠이 된다. 그리고 시나위의 즉흥성을 가미하여 작품을 진행한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즉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한국춤의 강한 성격이자 특징이기도 한 즉흥은 무용수들과 안무가의 작업 과정에서 춤을 추출할 때 사용한 방법이며, 여기에 안무적 선택과 결정, 그리고 구성이 더해졌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의외로 작품의 단단함을 발견할 수 있다. 구성이 명확하고 무용수들의 움직임들이 일관되며 체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AHRA>의 매력은 젊고 현대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유재영과 정도운이 담당한 음악은 기존의 시나위에 탑재되어 있는 음악적 원형을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구성했다. 여기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기에 전통음악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구나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적 비트와 전자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전통 타악기의 박자와 리듬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이들이 보여주는 정서적 감각은 지극히 현대적이며 동시대적이기에 출연한 무용수들의 춤동작들이 선명한 한국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움직임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작품 <AHRA>가 음악적 요소에 맞춰 진행되는 단순한 작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안무가 배진호는 한국적 정서에서 주요한 요소인 '한', 그것도 아리랑과 관계 깊은 여인의 한에 보다 집중했다. 시나위의 음악적 해석보다는 고개를 넘는 힘겨운 '한'에 의미적 해석을 강화한다. 그야말로 한 번 더 꺾고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도입부의 독무 장면으로 이 작품이 지닌 강렬한 정서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아련한 그리움과 슬픔, 인내와 탄식 등 다양한 정서와 분위기로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여성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무용수들의 의상은 일종의 젠더리스(genderless)한 경향이 강하며 작품에서도 성적 구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감지된다. 오히려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근거한 에너지와 강렬한 존재감이 이 작품의 주요한 요인임을 느낄 수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왜 감각에 의한 체험 중심의 무용공연을 접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전경을 보여주거나 서사가 존재하는 작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안무가 배진호는 그러한 고전적 방법보다는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상태를 군무로 표현해 강화한다든지, 일정한 정서적 상황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강화하면서 점층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덕분에 작품은 다소 추상적이며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미지는 세련되고 섬세하기에 충분히 공감을 사고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무용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감각과 정서를 통해 다양한 상상과 감흥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범위를 크게 열어 놓고 가는 안무적 선택이다. 그리고 이는 안무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배진호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 무용가의 차별점과 독특함은 그 자체만으로 비교하는 재미가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다름과 차이를 관객의 취향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지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립무용단이 기획한 <더블빌:시나위>는 세대, 감각, 정서, 해석의 다름을 열어 놓고 자유로운 감상과 상상을 관객에게 무한히 허용한 열린 기획이 아닌가 싶다.

AHRA 작품소개

<AHRA>는 아리랑에 담긴 다양한 정서와 시나위의 즉흥성에 주목해 이를 오늘의 신체 언어로 풀어낸다. 13명의 젊은 무용수들로 구성된 NDCK Ⅱ의 날렵한 움직임과 에너지로 다채로운 움직임의 매력을 선사한다.

안무가는 거대한 움직임보다 몸 안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떨림과 진동에 주목하는 동시에 정해진 움직임을 일률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무용수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응하며 순간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나위'의 즉흥성을 안무에 끌어들인다. 각자의 움직임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을 거듭하며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고, 점차 에너지를 축적해 폭발하듯 분출됐다 다시 사라진다. 빠른 속도와 강한 에너지뿐 아니라 순간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무용수의 신체는 감정과 움직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작품의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시나위가 가진 음악의 원형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여 강렬한 비트와 전자음에 재해석한 전통 타악을 입혀 동시대적인 음악적 질감을 만들었다.

장식적인 요소를 덜어낸 무대디자인은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에 더욱 집중하게 하고, 검은색 전신 타이즈에 자개를 연상시키는 새와 꽃 등 문양을 더해 현대적인 실루엣과 전통의 이미지를 결합한 의상디자인으로 작품미학을 디테일하게 끌어 올린다.



AHRA 안무노트

안무 배진호



<AHRA>는 한국춤의 어름과 디딤, 그리고 절제된 호흡을 재료로 빚어낸 또 다른 얼굴의 한국춤이다. 아리랑이라는 노랫말을 오직 무용수의 몸으로, 그 몸의 언어로만 옮겨낸 작품이다.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설이 없을 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원이 무엇이든,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집단적 정서와 시간을 축적해 온 하나의 감각적 구조로 받아들여져 왔다. 지역과 시대를 넘어 전승되며, 그 안에는 그리움과 슬픔, 인내, 그리고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반복되는 선율과 추임새 속에 응축되어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후렴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작동한다. 아리랑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한과 애를 고이 겪어내는 과정 자체에서 흘러나온 소리이며, 나는 이 작품을 그 노랫소리를 시각화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제목 또한 아리랑의 음성 구조에서 왔다. '아'에서 시작된 호흡이 '라'로 확장되며 소리와 진동, 리듬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자체를 가리켜 <AHRA>라 이름 지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백 번째 언덕을 넘고 나면 다시 백한 번째 삶이 시작되고, 무용수들은 그 안에 쌓인 한과 애를 안은 채 끊임없이 고개를 넘어간다. 사랑과 슬픔, 절망과 질투, 그 수많은 감정을 통과해 온 우리 민족의 시간이 몸 위에 겹쳐진다. 무대 공간은 '언덕'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인생이라는 험난하고 고된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을 노래가 아닌 몸으로 짚어낸다.

이 작품에서 무용수들은 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그 역사를 몸에 기록한 상태로 무대에 선다. 한과 애를 새긴 채 그 정서에 이미 동화된 상태에서 출발하기에,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각자의 사연과 기록으로 다르게 피어난다. 그래서 <AHRA>에는 별도의 극이 없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대신, 그들이 몸에 새겨온 기록에서 배어나오는 표정만이 무대 위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호흡과 곡선, 발 동작이라는 한국무용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반복과 확장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신체적으로 증폭시킨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기 위한 몸, 그 버팀에서 나오는 처절한 표정과 그럼에도 살아가려는 욕망이 얼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나는 이 작품을 오직 그 몸짓으로만 설명하려 했다. 견디는 몸과 그 몸이 남긴 흔적만을 무대에 남긴다.

작품은 미세한 상태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밀도를 쌓아간다. 절제된 움직임에서 시작해 호흡과 에너지가 축적되며 확장되고, 그 누적은 결국 신체의 소진에 이른다. 해방이나 카타르시스로 나아가지 않고, 껍질 한 겹을 벗기 직전, 고통이 최고점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 멈춘다. 관객이 감상을 넘어 그 몸의 진동과 소진의 순간까지 함께 통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작업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땅에 남긴 채, 또 다른 언덕을 넘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AHRA 음악노트

음악감독 정도운 / 타악작곡 유재영

<AHRA>는 안무가 배진호가 제시한 '한', '애절함', '피어나기 직전', '껍질을 벗기 직전', '고통의 최고점'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했다. 슬픔과 한, 희생, 민족성의 정서를 바탕으로 국악의 반복과 호흡, 공명은 가져오되 전통 악기나 선율을 직접 재현하지 않고 전자음과 왜곡된 소리로 변환했다.

이를 소리로 구상하면서 어두운 새벽, 안개가 쌓인 오래된 기와집의 마루에서 누군가 춤추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 이미지는 작품의 소리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음악은 낮은 음역의 작은 사인파(sine wave)에서 시작해 계곡의 물소리, 거친 바람, 피리를 떠올리게 하는 음색, 형체를 알 수 없는 진동과 노이즈로 확장된다. 익숙한 풍경의 소리를 자르고 늘이고 겹쳐 낯선 질감으로 바꾸었으며, 이러한 소리의 층을 통해 어딘가로 이동하는 듯한 공간감과 점차 쌓이는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음악 초반부의 기본 틀에는 1913년 녹음된 송만갑의 춘향가 〈옥중가〉가 놓여 있다. 오래된 목소리에 남은 한과 애절함을 잘라내고 왜곡해, 어둡고 멍멍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불분명한 목소리로 변환했다. 이후의 전개는 이 변형된 목소리에서 파생된 전자음과 반복적인 리듬, 장구 녹음, 베이스와 잔향을 바탕으로 확장되었다. 각각의 소리는 다시 변형되어 특정 악기로 규정할 수 없는 질감으로 남는다.

작업 과정에서 안무가와 무용수들의 춤을 바라보며 기괴함과 우아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움직임을 발견했고, 그 인상은 이후의 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반복되는 소리와 거칠게 부서지는 음향 안에 애절함, 포기한 상태의 슬픔,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는 긴장을 담았다.

<AHRA>는 고통의 감정을 유지한 채 반복되는 소음과 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의 잔향을 구현하고, 점점 멀어지며 마무리 된다. — 음악감독 정도운

굿거리, 휘모리, 흘림, 빠른 청배(3+3+2 리듬), 동해안별신굿 푸너리 1장을 재료로 삼는다. 중반부에서는 굿거리와 휘모리의 채편만 따로 떼어내 효과음으로 사용한다. 후반부에서는 4/4박자 계열인 휘모리, 흘림, 빠른 청배(3+3+2 리듬), 동해안별신굿 푸너리 1장이 테크노와 공유하는 공통 구조를 묶어, 국악 장단과 테크노를 동시에 전개한다.

국악의 색채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질감으로만 남긴다. 시나위의 장단 감각은 매우 얇은 레이어로 사용해 관객이 국악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한다. 음악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신체를 직접 밀어내는 리듬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반복 구조 안에서 분절과 변형을 지속하며, 리셋 없이 에너지를 누적해 결국 신체의 소진 지점까지 밀어붙인다. —타악작곡 유재영

AHRA 출연진

국립무용단(NDCK) II



박혜지



이요음



황태인



박준명



박소영



이도윤



강대현



이재인



김나형



박준엽



이승연



이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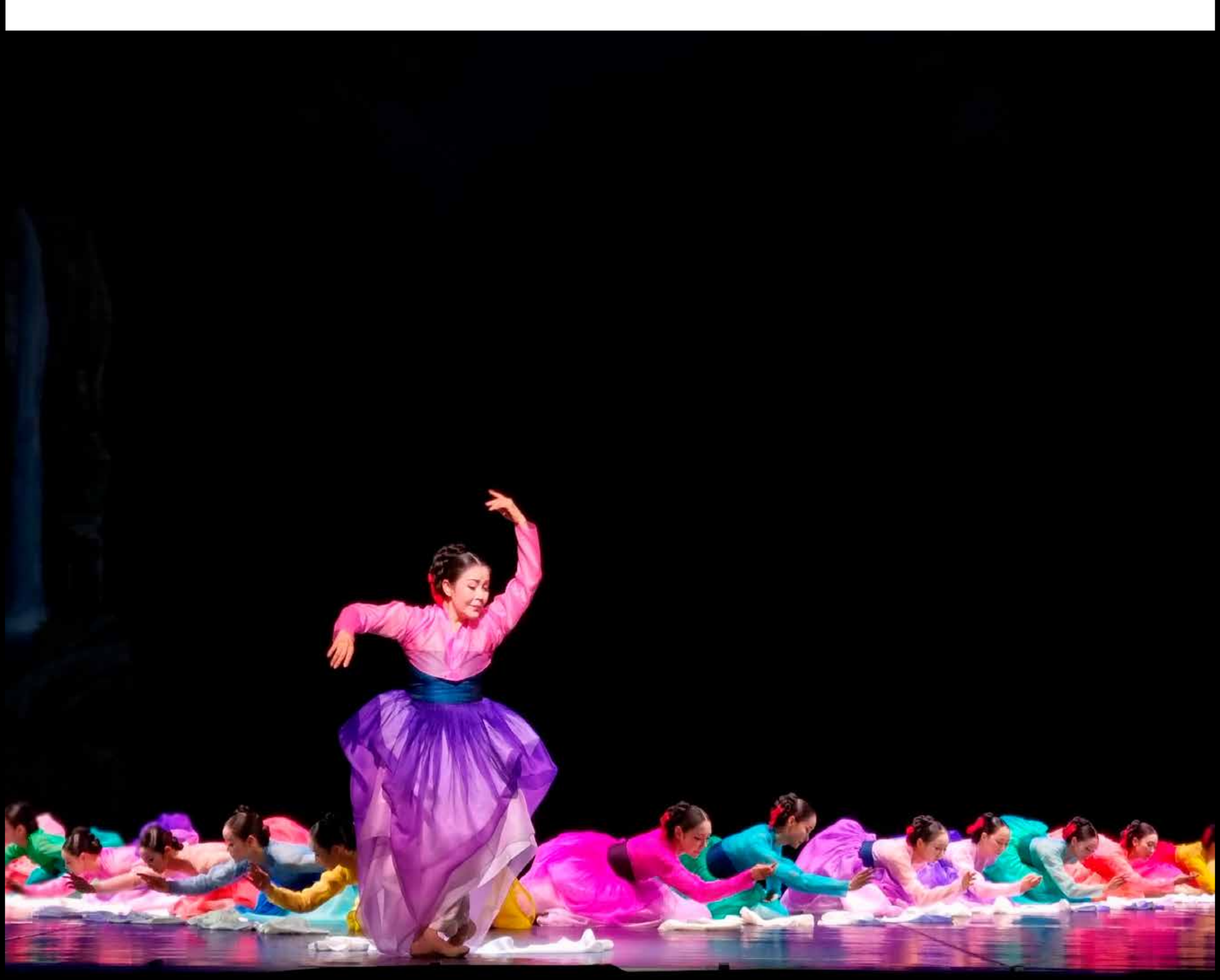
서상원

살풀이 生 작품소개

<살풀이 生’>은 살(煞)’을 풀고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기원하는 살풀이의 정신을 시나위 음악 위에 얹어낸다. 깊은 호흡과 연륜을 지닌 무용수 27명으로 구성된 NDCK I이 이매방류 살풀이, 한영숙류 살풀이, 김숙자류 도살풀이, 김수악류 교방굿거리 등 다양한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배정혜 특유의 춤 언어를 더해 오늘의 살풀이를 선보인다.

오랜 시간 한국 춤을 익히고 무대에 서 온 이들의 몸에는 움직임의 숙련을 넘어 저마다의 시간과 경험이 켜켜이 쌓여있다. 한 번의 디딤과 호흡, 손끝의 작은 움직임에서도 깊이와 여백이 묻어난다. 화려한 기교보다 오랜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호흡과 여백을 통해 한국 춤이 지닌 축적의 가치를 보여준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시나위의 정서는 음악을 타고 다채롭게 흐른다. 각기 다른 소리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음악은 춤이 가진 흥과 멋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영상과 디지털 기술 대신 옛 무대미술의 수작업 작화 방식을 활용해 완성한 무대가 어우러져 작품은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만들어 낸다.



살풀이 生 안무노트

안무 배정혜



<살풀이 生>은 '우리 춤이 가진 좋은 춤사위를 어떻게 하면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출발은 시나위입니다. 시나위는 여러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듣고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춤도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춤이 만나고, 각자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한데 어우러지면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매방류, 한영숙류 살풀이와 김숙자류 도살풀이, 그리고 김수악류 교방굿거리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춤사위를 서로 만나고 이어지게 하면서 오늘의 살풀이로 풀어냈습니다. 오래된 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춤사위와 정서를 살려, 오늘의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또 다른 춤으로 만들어 가는 '신전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춤에는 참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맺고 풀고, 멈추었다가 다시 나아가는 맛도 있고, 조용히 호흡하다가 한순간 힘 있게 뻗어나가는 멋도 있습니다. 살풀이춤이라고 하면 흔히 한이나 슬픔처럼 무거운 정서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흥도 있고 신명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에서 그런 우리 춤의 여러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단원들은 오랫동안 한국춤을 추며 자기 몸 안에 춤을 쌓아 온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가진 춤의 맛과 호흡을 보여주고, 그것이 서로 어우러질 때 더 재미있는 춤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나위에서 악기마다 제 소리를 내듯이 무용수들도 자기 춤을 추고, 그 춤이 모여 하나의 큰 춤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풀이 生>은 우리 춤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 속에서 꼭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이 흥겨우면 장단을 따라가고, 춤이 좋으면 춤을 바라보고, 흥이 나면 함께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단원들이 무대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처럼 관객 여러분도 그 속에 함께 들어와 한바탕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춤이 참 멋있고 재미있다'는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풀이 生 음악노트

음악 선곡 및 구성·음악감독 원일

배정혜 안무가와의 인연은 안무가가 서울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때에 대극장 창작 무용 공연 <두레>(1993년 초연)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국립무용단 최초의 정식 음악감독을 제안받아 예술감독 배정혜 안무가와 함께 재직하며 <4인4색> <신라의 빛>과 같은 정규 공연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최근에는 배정혜 춤의 모든 기본기가 담겨 있는 <배정혜의 바(bar)기본_10개 소품들>의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하면서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다.

배정혜 안무가는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음악을 선택한다. 명확한 춤의 구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어떤 음악이 거기에 맞는지 아닌지만 있을 뿐, 안무한 작품에 사용될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애매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배정혜 안무가와 작업하며 때로는 엄청난 당혹감과 좌절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배정혜 안무가와 긴 시간 동안 이어온 예술적 인연으로 이제는 안무가의 취향과 안무 방향에 대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사전에 많은 음악을 들으며 안무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음악을 상상하고 고심하며 최종 선택할 수 있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무가와 소통하여 음악감독의 역할을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 까다로운 배정혜 안무가의 직관적이고 명확한 의도가 처음부터 분명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음악 선곡이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 배정혜 안무가와의 작업 중 가장 전통적인 음악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는 장면별로 사용된 음악과 연주자들의 정보와 간단한 배경을 소개하였다. 최고 수준의 전통음악 연주자들이자 현대적 작업을 병행하는 창작자들에 의하여 녹음된 음원들이다. 이번 공연에 맞춰 일부 음악(5.구음 대풍류)은 새로운 관점에서 작업한 전통음악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춤과 함께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살풀이 生 음악노트

1. Intro

• 대금 : 김선호-상령산 풀이 1장

• Voice : Sainkho Namtchylak-Nakid Spirit Amiata Records.ARNR 2298

2. 김수악류 구음검무

• 구음 : 김보라 / 장구 : 고준형

‘헛간의 도리깨도 춤추게 한다’고 극찬받을 정도로 구성지고 예술성이 뛰어난 진주 권번 출신 명인 고(故)김수악 선생의 구음을 독창적인 소리꾼 김보라가 이어받아 김수악 소리에 새로운 멋과 깊이를 더해 검무와 합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음검무는 서울교방에서 ‘김경란제 구음검무’로 전승되고 있다. 서울교방은 2010년 전통 춤꾼 김경란을 중심으로 출범한 전통춤 수련 공동체이다. 소속 동인들은 오랜 동지이자 도반(道伴)으로서 스승 김경란과 함께 꾸준히 전통춤을 연마하고 있다.

3. 운우지정(雲雨之情)

• 공동구성 / 산조가야금 : 이지영, 거문고 : 허윤정, 장구 : 이태백

이지영 50년 음악 인생을 집대성하여 발매된 전집 음반《이지영 가야금 전집 – 비단나비》의 5번째 CD 〈허튼가락〉 2번 트랙. 가야금과 거문고 이중주에 의한 즉흥연주로 남녀의 사랑을 엮었다. 거문고의 웅장한 저음은 남성을, 가야금의 밝고 화사한 음색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약속으로 휘모리 가락을 엮어 남녀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사랑을 담아냈다.

살풀이 生 음악노트

4. 〈청보〉 중 가야금, 거문고 병주

• 가야금 : 김용성, 거문고 : 박다울, 장구 : 방지원

김용성류 가야금 산조를 거문고와 병주로 편곡하고, 동해안별신굿의 청보장단 2장~5장 장단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산조와 달리 잘 다루지 않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토속민요 등을 가지고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 동해안별신굿 장구로 반주하도록 구성된 곡이다.

5. 구음 대풍류

• 구음 : 채수현, 가야금 : 연지은, 해금 : 최태영. 장구 : 이준형

관악기 중심으로 연주되던 기존의 연주 형태를 벗어나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의 아이디어에 채수현의 구음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맛의 구음 대풍류를 구성하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살풀이 춤 사위를 바탕으로한 창작 안무 장면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곡 진행과 악기 구성이 시도되었다.

6. 나전요잡(羅前繞匝)

• 북·구음·구성 : 방지원, 아쟁 : 김용성, 해금 : 최태영

타악 연주자이자 창작자 방지원이 흩어진 가락들을 모아 새롭게 구성한 곡으로 전통 예술의 울타리이자 그늘막이 되어준 선대 조상들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남성들의 호방하고 유쾌한 안무에 사용되었다.

7. 윤윤석제 가야금산조

• 가야금 : 임도경, 장구 : 방지원

아쟁 명인인 (姑)윤윤석이 남긴 철 아쟁산조의 기본 가락을 그의 아들 윤서경(아쟁)이 기존 가락에 새 가락들을 더 창작하여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에게 처음 전수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산조이다.

살풀이 生 출연진

국립무용단(NDCK) I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윤성철


장현수


김미애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관영


정길만


이세범


정세영


정소연


이윤정


정현숙


김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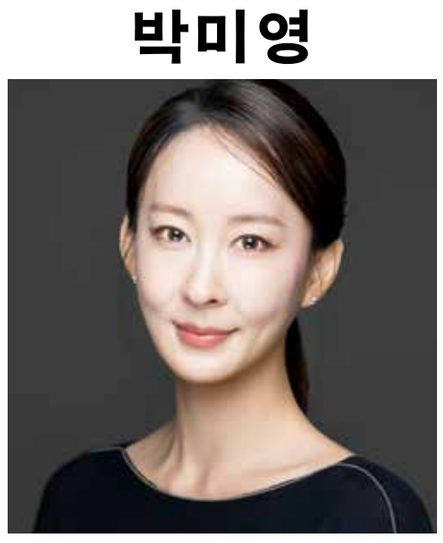

김회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박지은

송지영

조용진

이석준



국립무용단 소개

1962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흥동·최현·국수호·김현자·배정혜·윤성주·김상덕·손인영에 이어 현재 김종덕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는 전통춤 모둠 <코리아 환타지>, 무용극 <춤, 춘향>, 세련된 한국 춤 <묵향> <향연>, 해외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춤의 가능성을 확장한 <회오리> <시간의 나이> 등이 있으며, 전통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미학의 춤 예술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무용단원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사위로 관객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풍성한 레퍼토리와 신작 개발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훈련장

장현수 정현숙 이석준

수석

김미애 정세영 조용진 황태인 박소영

부수석

정길만 정소연 김은이 박혜지 이도윤 선승훈 이승연

단원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윤성철 박재순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관영 이세범 최원자 이윤정 박기환 엄은진 김회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박지은 황용천 송지영 이재화 이요음 조승열 박준명 박수윤 이태웅 강대현 이재인 김나형 박준엽 이승찬 서상원

instagram.com/ndckorea

창작진

AHRA

안무 **배진호**

조안무 **박선화**

안무지도 **박혜지**

리허설 어시스턴트 **유재성**

작곡·음악감독 **정도운**

타악작곡 **유재영**

무대디자인 **김종석**

의상디자인 **최인숙**

조명디자인 **이정윤**

조명프로그래밍 **석보미**

음향디자인 **이재식**

살풀이 生

안무 **배정혜**

조안무 **장혜림**

안무지도 **조용진**

음악 선곡 및 구성·음악감독 **원일**

무대디자인 **김종석**

작화디자인 **김유리**

의상디자인 **배경술**

조명디자인 **원재성**

음향디자인 **이재식**

무대감독 **정대교, 임기수, 박재민**

의상감독 **조근하**

장치감독 **강규한**

작화감독 **김유리**

분장디자인 **박효정**

분장팀 **정선희, 이유미, 한도희, 배윤정**

홍보사진 **황필주**

연습사진 **이다빈, 윤유성**

홍보물디자인 **워크룸**

홍보영상 **스튜디오 것**

옥외홍보물 **대일특수**

재활트레이닝 **롤링앤웨이브**

국립극장 제작진

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책임프로듀서 **오지원**
프로듀서 **오수정 박슬기**
총무 **변승희**
인턴 **민세희**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팀장 **채인영**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이종민 박양미 박명빈**
물리치료실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이서정**
마케팅 **이아림 김수린**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이지윤 정지윤 이인영**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행정 **김홍석**
무대감독 **정대교, 임기수, 박재민**
안전관리 **강현후**
기계감독 **이정환, 이보한**
기술지원 **김진년**
조명디자인·감독 **원재성**
프로그래머 **이준**
오퍼레이터 **최기준**
팔로우 스팟 오퍼레이터 **신의정, 함승완, 은명희**
기술지원 **박문섭, 주영석, 김종락, 이희선, 공미진**
음향디자인·감독·오퍼레이터 **이재식**
기술지원 **진하명, 이예원, 최경은, 전종훈**
영상감독 **임영선**
기술지원 **김여름**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김재영**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강규한**
기술지원 **강승구 유민석 김정규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김유리**
기술지원 **박순용 최다정**
소품감독 **홍재민**
기술지원 **채수형, 정욱, 박현이**
장신구감독 **이주선**
기술지원 **김은경**
의상감독 **조근하**
기술지원 **김효영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박일천**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차경주 박은영 구해나 이다빈 김은채 이주한 안수진 유정수 정일석 노승관**

후원
한국산업은행

국립극장
인스타그램 **ntong_ntong**
유튜브 **ntong2**
블로그 **ntok2010**
페이스북 **NTOKstory**

WHAT'S NEXT?

세상을 바꿀 NEXT 산업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사례마에치